

우수 경관행정 사례 발굴 및 공유의 장 마련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2019. 7. 5.

제3회 경관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작



붉은벽돌 건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경관 변천기록 아카이브(인천광역시)

출처: 국토교통부, (2019), 제3회 경관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서울
성동구·인천시 영예의 최우수상 수상, 7월 5일 보도자료.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한국경관학회가 후원하는 ‘경관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경관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관업무 관계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7년부터 매년 지역의 우수한 경관사례를 발굴·공유해 왔으며, 올해로 3회를 맞았다.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공모하여 접수된 18개 작품 가운데 최우수상 2점(국토교통부 장관상), 우수상 5점(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상 2점, 한국경관학회장상 3점) 등 모두 7개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하였다.

최우수상에는 주민과 함께 지역 건축자산을 활용하여 마을 브랜드화에 성공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성수동 붉은벽돌 건축물 보전 및 지원사업’과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경관기록시스템 구축을 마친 인천광역시의 ‘소통과 협업을 통한 경관기록체계 구축’이 선정되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성수동 붉은벽돌 건축물 보전 및 지원사업’은 과거 경공업 중심지로서 도시 저층 주거문화를 대표하는 성수동 내 붉은벽돌 밀집지역을 보전하고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행정지원 및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의 상징공간을 조성한 노력이 높이 평가받았으며, 마을 브랜드 구축의 성공적 사례로 호평받았다.

또 인천광역시의 ‘소통과 협업을 통한 경관기록체계 구축’은 그동안 「인천광역시 경관조례」에 따라 추진 중인 경관기록화사업의 결과물을 데이터화(도시경관 변천기록 아카이브)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도시경관을 지속적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화보·누리집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 도시경관정책 수립, 관련 학술연구 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이 외에도 우수상에는 한국도로공사의 ‘함께하는 디자인 고객디자인단’,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의 ‘태안해안국립공원 연안생태계 및 경관개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대표적인 혐오시설 지역 행복충전소로 국민에게 활짝’, 광명시의 ‘예측 가능한 행정을 위한 광명시 경관가이드라인 수립’, 대전시의 ‘대전 원도심 근대문화 탐방로 조성사업’ 등이 선정되었다.